

문세영, 한국기수 첫 싱가포르 대회 우승

14경기만에 'THUNDER CAT' 타고 첫승
"한국 경마팬의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

한국경마의 황태자 문세영 기수가 6월2일 싱가포르 크란지 경마장에서 열린 제9경주(class 4, 1000m, 플리트랙, 현지시각 22시20분 출발)에서 'THUNDER CAT'(5세, 거, 호주산)과 호흡을 맞추며 첫 승을 달성했다.

싱가포르에서 거둔 한국 기수 최초의 승리다. 싱가포르터프클럽(STC)은 현지에 진출한지 14경기 만에 한국 기수가 거둔 최초의 우승에 주목했다.

싱가포르 진출을 선언했던 문세영 기수는 5월7일 출국해 8일부터 싱가포르 크란지 경마장에서 경주마 훈련을 시작했다. 우수한 외국 기수들이 많은 싱가포르에서 적응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5월19일 첫 출전한 제2경주와 제8경주에서 각각 11위와 8위를 달성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우려는 잠시였다. 문세영 기수는 5월21일 4,5,6,7경주를 연달아 기승하며 빠른 적응력을 보여줬다. 4경주에서 3위를 기록하더니 마지막 7경주에서는 '노스모킹제프'(NO SMOKING JEFF)와 함께 2위를 합작했다.

한국경마의 황태자로 불릴 만한 적응력과 집중력이었다.

마침내 문세영 기수는 출전 14경기 만에 'THUNDER CAT'과 호흡을 맞추며 첫 승을 이뤄냈다. 'THUNDER CAT'은 이 경주 전까지 40차례 출전해 1위 4회, 2위 2회, 3위 3회를 달성했지만 최근 성적은 6위, 9위, 13위로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 단거리 경주의 여건상 안쪽 게이트가 유리했지만 10번 게이트에 배정되어 어려움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문세영 기수는 출발 이후 중위권에 자리 잡은 뒤 결승선 50m를 앞두고 때어서 추입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단승식 배당률이 72배를 기록했을 만큼 기대가 낮았던 경주마로 이뻐던 승리였다. 문세영 기수의 날카로운 역전승은 싱가포르 현지 경마팬에게 고무적인 인상을 심어 주었다.

'THUNDER CAT'의 조교사 알윈 탄(Aliwin Tan)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싱가포르 경주마 '엘파드리노'의 조교사다. '엘파드리노'는 2014년, 2015년 한국에서 개최한 아시아컵챌린



문세영 기수가 6월2일 싱가포르 크란지 경마장에서 열린 제9경주에서 'THUNDER CAT'을 타고 역사적인 첫 승을 달성하며 '한국경마의 황태자'다운 기량을 과시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수가 작성한 새 역사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지에 출전해 우승과 2위를 기록했다.

알윈 탄 조교사는 "좋은 출발이다. 문세영 기수가 싱가포르에서 아는 조교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나를 찾아오는 성실함을 보았다"면서 문세영 기수를 극찬했다.

문세영 기수는 "이번 우승을 통해 다른 조교

사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있기를 바란다. 기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싱가포르 터프클럽(STC)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한국 경마팬의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우승소감도 남겼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6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사흘간 워터파크로 변신해 3000원의 행복을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선물한다. 1000명이 동시에 즐기는 '렛츠런 워터파크'에는 100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 유아 전용 풀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을 갖췄다.

3000원의 행복... '렛츠런 워터파크'에 모여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워터파크 변신
입장료 3000원 파격...11일부터 개장

가족형 테마파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워터파크로 변신한다.

국내 최초로 말(馬)을 테마로 한 '워터 페스티벌'을 6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매주 금·토·일마다 개최한다. 입장료는 3000원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물놀이 시설 '렛츠런 워터파크'다. 1000여명이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렛츠런 워터파크'에는 100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 유아 전용 풀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의 시설을 갖췄다. 사계절 썬매동산 슬레드 힐과 유아들이 보트를 직접 타 볼 수 있는 보트존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전국에 다양한 워터파크들이 있지만 단돈 3000원으로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렛츠런 워터파크'가 유일하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3000원으로 물놀이와 말 테마파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안전요원이 시설을 지키며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휴식공간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말(馬) 테마파크도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

2011년 866억원을 투입해 126만㎡(38만평) 부지에 조성된 말 테마파크는 도심 속의 가족공원으로 입지를 다졌다. 주말 낮이면 말들이 달리는 경주마에서부터 숲체험, 모래놀이, 곤충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토마의 정원', 다양한 종류의

말로 승마체험이 가능한 '포니 승마장'까지 말 테마파크에서 전부 즐길 수 있다. 밤에는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 빛 테마파크 일루미아까지도 공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전기차인 순환열차를 이용하면 38만평의 부지 위에 조성된 테마파크의 명소들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순환열차는 '워터파크', '호스토리랜드', '승마랜드' 등의 정류장에 정차한다. '호스토리랜드'는 어린이들이 세계의 말문화를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호스아일랜드'는 가족과 연인을 테마로 한다. 둘레 1km의 호수와 장미원, 동화 같은 분수터널, 야와 갤러리 등으로 구성됐다.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 포토존도 있다. 승마랜드에서는 신장 50cm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말 '버튼스앤보우(일명 바우)'를 비롯해 고산지대에서 짐을 나르는 '셔틀랜드 포니', 스페인인 원산지인 짐바키 말 '아팔루사' 등 다양한 품종의 말을 볼 수 있다.

워터 페스티벌에는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공연·체험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11일 개장 일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박구윤의 흥겨운 공연과 혼성 7인조 그룹사운드 비스타, B.N.G 방송댄스 걸그룹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특별무대에서는 '넌타넌'이 공연을 펼치며, 버블매직, 비보잉 댄스배틀 등 다양한 초경 공연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말 관련 상식 OX게임 '퀴즈 마왕선발대회'부터 뿔롱사격대회, 미니수영대회, 어린이 손인형극 등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체험행사도 열린다.

김종건 기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7일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팅 대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6월17일 '제2회 전국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팅 대회'를 개최한다. 5세 이상의 남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문화정착과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호스아일랜드' 인라인스케이팅 트랙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지난해 5월 벌어진 제1회 대회에는 부산경남지역 초·중·고생 300여 명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첫 대회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종목도 다양화하고 참가 연령을 세분화 했다.

대회는 스케이팅 초보를 위한 '피트니스라인'과 스케이팅을 전문적으로 훈련한 어린이를 위한

'레이싱스케이팅' 두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밖에 계주 경기인 단체전도 별도로 펼쳐진다.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상금 30만원, 준우승팀과 3위팀에게도 트로피와 푸짐한 경품을 준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워터페스티벌' 무료이용권(1매당 2인 사용)과 아름다운 빛축제 일루미아 입장 50% 할인권(1매당 4인 사용)을 각각 선물한다. 대회참가는 무료다.

6월11일까지 부산롤러경기연맹 홈페이지(bf.sf.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회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롤러경기연맹(051-500-7962) 또는 한국마사회 콜센터(1566-333)로 전화하면 된다.

김종건 기자

렛츠런파크 서울, 10일 연극 '보물섬' 무료 상영

연극 '보물섬'이 세계최대 크기의 전광판 '비전127'을 통해 6월10일 오후 6시20분부터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에서 상영된다. 런닝타임은 2시간.

한국마사회는 서울과 과천 인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레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비전127 문화예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를 맞아 상영작으로 선정된 연극 '보물섬'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고전 소설이 원작이다. 짐 호킨스라는 소년어 겪는 모험의 여정이 배우들의 연기와 영상미로 흥미롭게

펼쳐져 어린이는 물론 성인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가로 127.2m의 거대 전광판으로 야외에서 즐기는 연극관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독특한 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 전당과의 협업으로 이뤄진 '제2회 비전127 문화예술의 날'은 무료로 진행된다.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렛츠런파크 서울 입장료도 면제된다.

김종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마사회, 말산업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A등급 한국마사회는 말사업체 제작자 보수교육을 위한 201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5월29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전략분야 성과평가에서 한국마사회는 사업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과정은 말산업분야 인재양성 역량을 인정받아 2016년 4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뒤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토토

"KIA 4~5점, 넥센 2~3점" 1순위

야구토토 스페셜 41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9일 열리는 2017시즌 KBO리그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41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46.85%는 KIA-넥센(1경기)전에서 홈팀 KIA의 승리를 점쳤다. 원정팀 넥센은 39.01%의 지지를 받았고, 나머지 14.12%는 같은 점수대를 예상했다. 최종 점수대로는 KIA 4~5점-넥센 2~3점 예상(6.34%)이 1순위였다.

LG-SK(2경기)전에선 원정팀 SK 승리 예상(44.91%)이 홈팀 LG 승리 예상(39.36%)과 같은 점수대 예상(15.72%)을 앞섰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LG 2~3점-SK 4~5점 예상(6.74%)이 최다였다. 한화-삼성(3경기)전에선 홈팀 한화 승리 예상(43.87%)이 원정팀 삼성 승리 예상(41.26%)을 근소하게 앞섰다. 같은 점수대 예

야구토토 스페셜 41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출-원정	KIA vs 넥센	LG vs SK	한화 vs 삼성
경기일시	6.9(금) 18:30	6.9(금) 18:30	6.9(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1	(4~5) (2~3)	6.34%	(2~3) (4~5)
2	(6~7) (2~3)	5.88%	(4~5) (2~3)
3	(2~3) (6~7)	4.04%	(4~5) (4~5)
홈팀 승	46.85%	39.36%	43.87%
같은점수대	14.12%	15.72%	14.89%
홈팀 패	39.01%	44.91%	41.26%

상은 14.89%. 최종 점수대로는 한화 4~5점-삼성 2~3점 예상(5.43%)이 가장 많았다.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41회차는 9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축구매치 3회차 982명 적중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8일(한국시간) 벌어진 한국(원정)-이라크(홈)의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을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매치 3회차 게임에서 982명이 적중의 기쁨을 맛봤다고 밝혔다.

전반(0-0 무) 및 최종 스코어(0-0 무, 연장 포함)·승부차기 제외를 모두 정확히 예측한 이들 982명은 각각 참여금액의 7.0배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는다. 이번 회차에는 1만3433명이 참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한 참여 열기를 보였지만, 0-0 무승부로 끝나면서 1000명에 가까운 적중자들을 배출했다. 또 1인당 구매금액은 6386원으로 나타나 건전한 참여문화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매치 게임이 큰 관심 속에 펼쳐지고 있다"며 "14일 열리는 카타르전을 비롯한 태극전사들의 경기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토토 '여자농구 최고 슈터에게 도전하라' 이벤트

'WKBL 최고 슈터에게 도전하라!' 국내여자프로농구 WKBL 최고 슈터들과 함께 가상 슈팅 대결을 벌일 수 있는 이색 이벤트가 스포츠팬들을 찾아간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10~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트리움 센터에서 WKBL 스타들과 함께 하는 '스포츠토토 빅매치 2017'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WKBL 대표 슈터들인 강아정(KB스타즈), 김단비(신한은행), 강이슬(KEB하나은행), 박혜진(우리은행), 박하나(삼성생명), 한채진(KDB생명)과 참가자들이 30초 동안 가상 3점슛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가상선수로 선정된 WKBL 스타들이 직접 행사를 방관해 실제 슛 대결을 펼치는 '스페셜 빅매치'가 이어지는 만큼 스포츠팬들에게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2시부터는

강아정을 비롯해 김단비, 강이슬이 현장을 찾는다. 11일에는 박혜진, 박하나, 한채진이 차례로 농구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모든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선크림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하루 3명씩, 총 6명의 우수기록자에게는 나이키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행사장을 찾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토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1000원 무료체험행사도 건전한 투표권구매문화 조성을 위한 페어플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투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